

평준화 실현을 위한 소식 1

안양,군포,의왕,과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 열리다.

10월 28일 새교육 공동체 안양, 군포, 과천 시민모임 주최로 안양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고교 입시 개선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열렸다.

교육 개발원 강태중 박사는 기초 발제를 통해 평준화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평준화 정책이 성적을 하향 평준화 시켰다는 기존의 비판은 근거없는 것이며 지금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증명된 바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다. 또한 74년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전국적인 여론 조사 결과 80%이상의 학부모와 학생이 평준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군포고등학교 이 성교사는 95년 96년 평준화 지역인 수원과 비평준화 지역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성과 대학입시 성적을 비교 분석하여 평준화 지역학생의 우수한 학생 성적 향상율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보다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월에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 조사결과 교사 93% 중고등 학생 82%, 학부모 85%가 평준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고교 입시제도의 변경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현행 교육법 시행령상 입학시험 10개월 이전에 발표해야 함. 따라서 99년 2월 10이전에 교육청이 발표해야,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변화된 입시로 고교 진학 가능. 지난 11월 4일 교육감 면담 결과 교육감은 평준화 정책으로의 전환에 난색을 표명함

고교 평준화를 위한 시민 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 여론 확산을 위해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중,고등학교 교사의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 중학교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을 설득하고 지지 서명을 받습니다
- 시의회, 시, 도교육청에 청원합니다.- 여론 확산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고입 선발제도 아래서

안양,군포,의왕,과천의 학생은

초등학교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충수업, 영재 과학수업, 야간 자율학습, 학원 또 과외.....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우리 나라 학생이 공부를 적게해서 지금 우리 국가가 국가 경쟁력을 잃고 IMF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은 억지로 머리속에 구겨넣은 지식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설계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함양된 창의적 사고능력입니다. 경쟁입시에 찌들린 학생에게서는 이러한 창의적 사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의 학부모는

엄청난 사교육비를 투자해서라도 자녀를 한 단계 높은 학교에 진학시키려 합니다. 입시철만 되면 한집 걸러 합집씩 난리가 납니다. 자녀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가가 집안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비평준화 입시체제가 앞으로 더 지속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뿔뿔하게 말할 수도 없고,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열등감과 좌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의 교사는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갖게 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적 목표는 뒤로 한 채, 남과 비교되는 몇 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학생을 억압하고 야단쳐야 합니다. 입시철만 되면 몇 점의 점수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와 실랑이하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와 자긍심은 점점 작아지고 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떠합니까? 담당학교, 담당학생을 만나면서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 고충과 그 부끄러움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수업도 생활지도도 교사의 자존심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비평준화 주장의 모순점

평준화 입시제도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

74년 고교 입시 평준화가 실시된 이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연구 조사한 어떤 자료를 보아도 평준화가 성적을 하향시켰다는 결과는 없습니다. 또한 국정 감사자료에 바탕을 둔 수원 지역(평준화 지역)과 안양 지역(비평준화 지역)자료를 비교 분석하여도 우수 학생 성적 향상율은 수원지역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울산, 포항, 익산의 자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전국 5백 84개 고교의 평균성적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평준화 입시제도가 학생의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현재 비평준화 지역에서 학생들이 어떤 특정학교를 선호하는 것은 학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및 교육적 서비스의 질이 우수해서라기 보다는 이미 학교가 서열화되어 있어서 보다 서열이 우수한 학교에 입학하기 위함이다. 지금과 같이 모든 학교가 획일적 목표와 획일적 내용을 획일적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실정에서 학습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울러 비평준화 입시제도하에서 학교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최상위에 있는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있을 수 있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여러 학교가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고등학교만 선택하도록 압력 받고 있다. 소수의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생동안 서러운 눈물과 좌절의 아픔을 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